# 第284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1月13日(金)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년도 예산안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審査된案件**

1. 2010년도 예산안 ····· 1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오늘 회의에서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통사무처장으로부터 차례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두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 1. 2010년도 예산안

### 가. 통일부 소관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0시24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통일부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진** 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지요.

**○박선영 위원** 지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때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정 모 씨의 억류 과정과 진상조사 그리고 그 분을 송환해 오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렸고 그때 위원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소위 구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정 모 씨만이 아니라 그동안 국군포로를 송환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말에 국군포로 K씨를 송환해 오는 과정에서도 그 K씨가 중국 공안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그 일행이 4명이었는데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군포로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송이 돼서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송이 된 A양의 경우에는 세 번째 탈북을 한 것이었고 그 여성은 국군포로 가족의 이종사촌이기 때문에 직계 가족은 아니어도 방계 가족이어서 당연히 국군포로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직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신병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그처럼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비인도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고 국군포로를 송환해 오는 과정에서 중개를 하는 브로커들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눈감고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빨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현재 여든네 살이 되신 정 모 할아버지의 경우에 언론에는 병원에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공안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사진을 공개했듯이 그 분은 현재 혼자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돼서 억류가 되고 있다는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좀더 빠르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박선영 위원께서 지난번 국군포로 억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위원회 및 진상조사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국군포로 또 그 가족에 대한 처리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국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야 간사 협의가 현재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간사 협의가 결론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충환 간사님, 지금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김충환 위원**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여야 간사 분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강경·도발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러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북한의 위협에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이 하반기부터 대남·대외관계에 있어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핵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에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우리 고속정을 향해 직접 조준사격을 가해 와 우리 측이 대응사격으로 북한 경비정을 퇴거 조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에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포기 결단을 지속 촉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보다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모으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국정감사 등 계기 시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업무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존중하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에는 통일부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최근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합의 및 중장기 통일 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일반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용방침에 따라서 점증형 방식으로 편성되어 정부총 일반예산 대비 0.07%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적은 규모에 머물러 있었으며 예산구조 또한 전체 사업비에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할 경우 순수사업비는 12% 수준에 불과한 정도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면서 북한 상황,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업무 관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예산 규모는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의 변화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 미래비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역량강화, 북한정세 분석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3500억 원을 포함하여 50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6.6%인 3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예산은 금년 대비 25.7% 증가한 1527억 원으로 인건비 282억 원, 기본경비 80억 원, 사업비 1165억 원이며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3500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통일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 미래비전 수립과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우리 국민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탈북자의 입국 증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하나원 분원 신축 예산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발맞추어 IT 세대인 청소년,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을 내실화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정세분석 인프라 구축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통일 정책 추진 등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소요 위주로 계상하였고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규모는 총 2조 2279억 원으로 남북협력계정에는 1조 3235억 원, 경수로계정에는 9044억 원을 편성하고 남북협력사업비 규모는 1조 1184억 원으로 금년도 1조 1182억 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하여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및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증액하였고 인도적 사업은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국제 곡물시세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수로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통일부가 통일·대북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남북관계 발전, 국민합의, 통일대비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지금 김호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실 예정이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예.

**○위원장 박진** 어떻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예, 간략하게……

**○위원장 박진** 그냥 죽 읽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은 이미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9% 증액된 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호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액된 50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1527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215억 원에서 15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예산 1527억 원은 인건비 282억 원, 기본경비 80억 원, 사업비 1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90억 원에서 282억 원으로 8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4억 원에서 4억 원을 감액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특화사업이 12건, 8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4건으로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32건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통일미래비전 수립과 관련해서 1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일통일 20주년 계기 통일정책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 정세분석과 관련해서 북한 방송디지털자료 실시간 수집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세지수 개발과 관련해서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적사업입니다.

하나원 분원 신축과 관련해서 50억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편성과 관련해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화교류 및 인적왕래 등은 남북관계 상황 및 과거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산가족 교류는 당국·민간 차원 교류확대, 상시상봉 체계 구축 등 안정적·정례적 상봉을 위한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사업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 방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협력사업은 대북경협 4대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기금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1184억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화교류지원사업은 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적지원사업, 무상사업입니다.

7159억 원으로 금년 대비 930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 무상지원사업입니다.

1448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지원사업, 융자사업입니다.

2489억 원으로 금년 대비 7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수로계정사업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수로계정은 사업비 없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8988억 원, 여유자금 55억 원 등 총 90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탄없는 지적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0년도 예산안은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금년 7월 1일에 출범한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운동 중심체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역 조직의 안정적인 통일활동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억 3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167억 6800만 원보다 4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비가 160억 7300만 원으로 75.8%, 사무처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51억 3000만 원으로 24.2%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보고드리면 사무처 인건비가 39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무처 정원 67명에 대한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100만 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 대비 44억 2000만 원 증액된 160억 7300만 원으로 법정회의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실효성 있는 통일 정책 자문건의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이 7억 60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규정된 국내·해외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지원 예산이 19억 6200만 원, 통일 여론수렴과 통일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일 여론조성 활동 예산이 8억 3600만 원, 지역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운영 및 통일활동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예산이 119억 9400만 원, 그밖에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700만 원, 정보화사업 3억 5100만 원 및 청사관리 외부위탁을 위한 예산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의 국비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활동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46.8% 증액한 11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문회의 개최 지원 예산은 해외 지역회의를 국내 초청 방식으로 개최하는 데 따른 예산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금년 대비 28.8% 증액한 1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 추진 예산은 국내외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관리 체계 구축과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금년 대비 48.7% 증액한 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이 금년 대비 26.4%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던 통일활동사업비의 국고 전환에 따른 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탈피하여 안정적인 지역협의회 활동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새롭게 구성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헌법이 부여한 평화통일에 관한 책무에 헌신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

안대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기관의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전문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부분과 2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회담행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남북회담행사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15억 원 대비 33%가 감액된 10억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남북회담 개최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경색이 완화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 내년에는 고위급 및 실무급 등 다양한 회담이 동시에 개최될 여지도 있다는 점과 남북한 간에 회의가 많았던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각 연도마다 회담 개최 경비가 최저 10억 원에서 최고 46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예산의 감액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독일 통일 20년 계기 통일 정책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독 통일 과정과 통일 독일의 구동독 지역 재건 및 통합 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8억 4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통일 독일의 경제적·사회적 통합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연구를 단년도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통일부 내의 각종 연구용역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행정지원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후원회 지원 예산 규모는 2009년도의 42억 100만 원보다 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기존 사업 외에 전문상담사 육성·활용 20억 300만 원, 교육 및 조사연구·정책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연구센터 설립·운영에 6억 51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원회가 별도의 전문인력이나 시설도 없이 현재와 같은 조직형태와 인력을 유지한 채 이러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후원회 조직의 구성과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통일교육 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동 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10억 7900만 원 대비 182%인 1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통일대화의 광장 6억 2200만 원,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22억 4700만 원, 사회통일교육 자료개발 1억 7600만 원 등으로 이 사업들 중 통일정책실 소관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사업 등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해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중 공자기금예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요구액은 9629억 4700만 원인바 이는 2009년 계획액보다 273.2%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경수로 계정에서 공자기금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8950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수로 계정의 차입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9월 현재 차입된 금액은 총 2조 741억 원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차입금 상환시기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다시 예수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당국 차원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식량지원 및 비료지원 사업의 2010년 예산 요구액은 6160억 1300만 원으로 2009년 계획액 7181억 7000만 원보다 102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여타 부분의 예산이 모두 증액된 상황에서 인도적 사업의 예산만 감액된 것은 북한의 가중되는 경제난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 동포의 생활 실상을 고려할 때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기금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사업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위원 활동지원 예산은 생략하고 다음 해외지역회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해외지역회의 예산액은 전년도 3억 9200만 원 대비 256.4%가 증액된 13억 9700만 원입니다. 해외 지역회의 개최 경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해외자문위원 증원과 해외지역회의를 해외 현지회의 대신 국내초청 회의로 개최함에 따른 해외자문위원의 초청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지역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국내외 자문위원 간에 의견교환 및 공통된 통일정책 목표 공유 그리고 국내 방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현지회의와 비교할 때 비용 및 참석률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고,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합의에 따라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 중 분단현장 및 남북 관계 사진전에 2억 9400만 원, 청소년평화통일대행진에 6억 6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미경 위원** 사진전에 3억 가까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6·25 6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6·25 전쟁 기념사업은 모두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통일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다루는 본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세요? 6·25 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정부 부처에서는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맞지 통일부에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우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평화통일대행진도 70년대 학도호국단격전지대행진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미 우리가 그야말로 남북의 평화 교류와 통일의 단계로 진일보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새삼스럽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장관님께서는 6·15와 10·4 선언 모두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미경 위원** 그런데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성명이 10주년이 됩니다, 내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인데, 통일부가 6·15 10주년에 맞춘 기념행사에는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통일부가 보훈처가 많이 하고 있고 또 보훈처가 하는 것이 마땅한 6·25 60주년 기념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6·15 공동성명 10주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되고 거꾸로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6·25 관련된 사업은 보훈처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 17억 원은 6·15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6·15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미경 위원** 그리고 예산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통일부의 전체 사업계획이 굉장히 없습니다. 통일부 자체의 활동이 거의 축소돼 나가는 경향을 보여 주고, 통일부 자체 존립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보면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관리·발전시키는 역할인데 이번 예산을 보면 통일연구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연구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823억 원을 빼고 나면 일반예산이 약 342억 원 정도 되는데 연구사업이 이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기형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업무를 최소화시킨 것을 다시 더 늘리도록 하고 연구사업에 돼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줄이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구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통일 주제에 대해서 다른 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한정돼 있고 재탕 삼탕하는 연구가 자꾸 나온다 하는 것, 예산의 낭비임을 지적합니다.

우선 민주평통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다가 하겠습니다.

통일무지개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지난번에 통일무지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통 사무처장께서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통일무지개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안 잡혀 있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안 잡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왜 안 잡혔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이것은 지금 232개 지역협의회와 101개국 해외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이 신관변단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년 지방선거, 다음의 선거를 앞두고 평통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자꾸 넓혀서 이 정부 들어와서 신관변단체를 또 새롭게 만든다 하는 지적을 야당에서 했지요, 민주당에서도 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이미경 위원** 그랬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는 안 잡아 놓고 지금 지역사업 예산으로 잡아 놓았고 그래서 지역 예산이 지금 371%가 늘어났습니다, 지역 예산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숨겨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짜서는 안 되지요. 숨겨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선 지역사업 활동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통일담론을 만들어 나가고 또 자문위원 답신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인데 통일담론 활동이 뭔지 하는 것도 애매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통일마라톤·판문점 견학 이런 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도 애매하고요, 통일담론에 대한 자문위원 답신 활동이라는 것도 뭔지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청년골든벨사업이라는 것도 통일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상당히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활동에 371% 증가된 것은 상당한 부분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예산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정세지수 개발사업 등등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개가 제대로 되어 활용이 되지 않고 통일부

자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짜려고 할 때는 좀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산 역시 불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60주년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 6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념할 만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전쟁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화를 생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연구사업은 이렇습니다. 올해도 남북협력기금이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못지않은 예산이, 1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내년에도 남북협력기금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에 비하면 정책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만 저희 통일부가 그야말로 통일 미래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북한정세지수는 아직 저희들이 공개·비공개를 결정한 바 없습니다만 타당하다면 그것은 공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드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고 좀더 공개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경 위원** 6·15 10주년 사업이 안 잡혀 있는데 왜 안 잡혔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아직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몇십 주년 되고 하면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10주년은 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건……

**○이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의 그러한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 예산심의에서 다시 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에는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 장관님, 예산 질의에 앞서서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서해교전 이후에 북한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차원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정욱 위원** 통일부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북한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어떤 채널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번에 장관께서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북한이 여러 척의 함정으로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에는 한 척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발적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장관께서는 우발적 사고로 보십니까, 의도된 도발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 저희들이 그 의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위원**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협력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은 남북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직접적인 영향은 현재 없다라는 표현이신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개성공단이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는 현재는 영향이 없습니다.

**○홍정욱 위원** 과거 10·4 선언에 포함되었던

남북 공동어로구역 등을 놓고 북한과 협의를 재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게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은 아니고요, 10·4 선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우리 해군이 지난 10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아주 강력하고 절제된 공격으로 반파한 것은 영토수호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북정책은 항상 전략적 선택의 문제지만 국토의 수호와 국민의 보호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어떤 대북정책의 선택에 우선하는 국가의 절대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일부장관께 세 가지만 간단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남북 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북한은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항상 도발의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는 철저히 하되 대화의 창은 반드시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 도발을 저지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면 대화, 커뮤니케이션은 통일부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냉철한 대응인데요, 장관님께서도 과거에 팃 포 탯(tit for tat)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장관님께서 북측 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협력 스탠스를 유지하시겠다는 발언은 바로 이 같은 적절한 응징, 그리고 추가대응은 자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 측 사상자가 없어서 스탠스를 잡기가 쉬웠지만 만일 우리 측 피해가 컸다면 저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 발생에 대해서 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 언급했듯이 남북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 저는 북한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누차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듯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남북 공동어로구역 문제의 진전을 양측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위급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제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안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적정 규모를 편성해서 낭비 없이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남북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용의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회담 관련 예산도 통일부가 11억 원을 요구해서 정부는 1억 원을 줄인 10억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15억 원, 2007년에 20억 원에 비해서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회담 예산을 저희들이 한 10억여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담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소요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또 그만큼 얼마든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남북회담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용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홍정욱 위원** 저는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홍정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정세 분석 관리예산, NSI 지수 만드는 게 18억 5000만 원 중에서 거의 14억 3000만 원인데요. 2007년에도 당시 참여정부에서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한다고 용역해서 6600만 원 정도 썼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홍정욱 위원**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그런 명분

을 댔습니다만 결국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좀 명확한 수치로 모면해 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NSI 정말 필요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제대로 된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히 할 수도 있고, 물론 좀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들인 만큼 좋은 모형이 나올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민간 해외기관 등이 많이 만들었던 평화지수를 2007년도에 우리 정부가 만든다고 했을 때 직면했던 비난과 결국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현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적 편향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객관적으로 만들었더라도 곡해될 여지가 다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세지수 개발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지수를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소위까지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확실한 입증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홍정욱 위원** 제가 질의 끝나면,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미래비전 수립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11억 4600만 원인데 이게 전액 행사용 예산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거 뭐 행사용……

**○홍정욱 위원** 대규모 학술행사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건 행사입니다마는, 하여간 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고 또 그 전문가들로부터……

**○홍정욱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1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1분 더……

**○위원장대리 김충환** 나중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통일미래비전 수립 관련 예산하고,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홍보 예산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황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홍정욱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거지만 그 사태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11월 11일날 남북 서해교전의 북한 의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발표하신 내용에서 '우발적 충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청와대 대변인은 '7년 만에 우리 함정을 직접 겨냥해서 쐈는데 우발적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방부장관은 '이것도 우발적 사건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께서는 그 의도 분석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지난 10월 15일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해군이 계속해서 NLL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고 뒤에는 행동이 따른다 이렇게 위협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경고방송을 계속해도 퇴각을 하지 않고, 다른 때처럼 경고방송 듣고 바로 돌아갔으면 모르는데 퇴각도 안 하고 또 경고사격을 하니까 직접 조준사격으로 우리한테 공격을 했는데 통일부장관께서 이것이 도발적 사고인지 아닌지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북한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건 평양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 해당 군관 사령관, 그쪽 지역 사령관이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이냐?'를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의도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정황이.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잘 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는 말씀은 좋지만 '북한의 의도된

거냐, 우발이냐?' 했을 때 결코 우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장관께서 판단을 유보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또 한 가지는 현재 그래도 대화 국면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국제사회에도 있고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첫째는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을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부분이 있으면 그건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黃震夏 委員**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 또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 이런 걸 했을 때를 보면 소위 담담타타(談談打打), 이런 말을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대화를 하면서도, 휴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 간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때에도 군사적 충돌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도발행위가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또 아니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 도발 같은 걸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전술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정부에서는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 계기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8억 46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에 투영이 되어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黃震夏 委員**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독일 통일이 됐었던 20년 전에는 20년 전 우리나라 생각으로 독일 통일을 봤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니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각으로 독일 통일의 교훈을 보는 것은 틀리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각에서 보는 독일 자체에서의 교훈도 있지만 우리 시각에서 어떤 분야를 더 준비하고 해야 되겠는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대충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내년이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일 이후에 독일의 정치·사회·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통일의 미래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이고 또 그 트렌드를 전부다 파악을 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이 모든 측면을 좀 더 종합적·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좋으신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걸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독일 통일 이전에 독일의 경우에도 전교조와 같은 활동이 엄청나게 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어떻게 서독이 잘 관리 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 인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동독의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정치수용소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보안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인권을 보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되게 되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줘 가지고 동독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정책들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추진해 간다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러한 기회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지난 20년의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세세한 그런 것까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인권 분야까지도 죽 보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는가,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또 꺼내 가지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지금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질의자들이 모두 준비한 것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시해야 할 것이 외교통상위원들이 입을 나란히 하여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해교전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는 겁니까, 의도적인지 우발적인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언제 분석할 거예요, 그걸?

**○통일부장관 현인택** 단정적으로 지금 딱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박상천 위원**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놓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남북 정상 간의 10·4합의를 보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 간에.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말은 이 합의를 준수한다는 것 아닌가? 그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10·4선언도 물론 NLL을 저희들이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10·4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해서 그 구체적인 이행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NLL을 북한이 부정하는 한 계속적으로 NLL 침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전 상태가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 간에 이런 합의를 해 놨으면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공동어로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NLL 문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 기본은 이제 NLL 문제라면 이것은 저희들이……

**○박상천 위원** 어로수역은 전체의 문제는 아닌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예요.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거기에는 어로구역도 있고 평화수역도 있고 그래요. 이걸 검토하셔서 NLL 문제를 구실로 한 북한의 계속적인 침범 또 이로 인한 교전 여기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이것도 여러 분이 묻던데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나오는 북한정세지수는 공개로 할 것입니까, 비공개로 할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도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의 공개 필요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단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국회에 보고를 하면 그게 공개된다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가 비밀이 지켜집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건 비공개로 하게 그렇게 되면, 그건 결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려고 하는 의욕은 알겠

는데 통일부가 할 경우에는, 남북회담을 주관해야 할 통일부가 할 경우에는, 가령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이런 것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 어떤 결과를 발표한 것하고 통일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것하고는 북한이 볼 때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러면 이것 하려면, 통일부가 그 대신 우리도 독자적으로 북한 정세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또 예측을 해 봐야겠다 이러려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번 과거에 있었던 평화지수입니까? 옛날에 평화지수도 3급 비밀로 취급했던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공개·비공개 여부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님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좀더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문제는 추후에……

**○박상천 위원** 그런데 이건 통일부가 전문성이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그것은 통일부의 자체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천 위원** 북한의 군사 정세나 경제 정세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 정세나 경제 정세 또 혹은 핵 정책의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 통일부가 잘 알고 있다고 보기가, 외교부나 국방부에 비해서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각 분야별로.

그래도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은 통일부 자체 인력만 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각계 분야의 상당히 우수한 전문가들을 많이, 아마 지수 개발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

**○박상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소위에서 집중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통독 20년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지금 예산으로 8억 4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통일연구원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박상천 위원** 통일부 내의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하려고 그럽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 통일정책실에서 하게 됩니다.

**○박상천 위원** 통일연구원은 계속적으로 이것 연구만 하고 있는데 그것 제쳐놓고 또 새로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연구원도 참여를 같이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상천 위원** 통일연구원에서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은 일부 물론 통일연구원에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그런 소위 특별한 계기를 삼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독일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연구들은 대부분 독일 통일의 초기 한 3년, 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것들도 또한 매우 단편적인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년을 한 큰, 말하자면 트렌드를 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정치·사회·안보·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세한 문제까지 짚고 앞으로 저희들이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가 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에는 구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NHK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국민일보 이런 언론을 취합해 보면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17·18

일 날 싱가포르에서 남북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언론을 취합해 봐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봐도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김숙 안기부 1차장이 10월 셋째 주 주말에 싱가포르에 갔다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 아직도 싱가포르 비공식 회담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간 '남북관계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2007년 4월에는 '국민의 합의 없이 투명하지 않은 어떤 회담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작년 3월 26일에도 '남북 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관계 틀 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이렇게 남북대화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주위 사람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이렇게 충성경쟁을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태희 장관이 언론에 난 대로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부장을 만났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태희 장관은 통일부장관이 아니고 노동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통일부장관이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있는데 왜 노동부장관이 비밀접촉을 합니까? 김양건이 북한 노동당 간부라서 노동부장관이 갔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싱가포르 회담에 국민들 비판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 왜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 여러 번 목도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 왜 자꾸 비밀리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난무한 여러 가지 설들,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저희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대화를 하여간 앞으로도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를 맡아야 하는 겁니다. 통일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서 남북대화를 다 총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비밀접촉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앞으로 남북대화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남북 정상회담 비밀특사 이런 것은요, 특히 대북특사, 남북 비밀접촉 이런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로 특사가 정해지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 비근한 예가 키신저의 핑퐁 외교입니다. 키신저는요, 그런 외교 분야의 일등 전문가이면서도 중국의 핑퐁 외교를 하러 가기 전에 열흘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가야 남북대화가, 이런 비밀접촉이 가능하지 대통령의 친소 관계로 왔다 갔다 하면 특사가 안 되는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런 자기 밥그릇 챙기는 그런 부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남북대화의 실질적 이득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 고위간부가 개성에 가서, 김 모 국장이 북한 개성에 가서 무슨 비밀접촉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누군가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 모 실장이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일부가 그 메신저 역할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장관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 근자에 파주시 시의원 네 분이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을 비밀리에 방문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상찬 위원** 현재 사법 당국에서 조사 중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런 것, 정말 통일부에서 잘해야 됩니다. 이것 통일부에서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것을 아셨다면서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출입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등록제를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 철저히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람들이 신분이 확실한 시의원이 아니고 월북할 사람이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통일부에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하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에 옥수수 주겠다고 전통문을 보낸 지가 지금 20일 거의 다 되어 가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10월 26일인가 그때 보내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통일부가 옥수수 지원비용 4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쓰기 위해서 교류협력추진회의를 한 바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아직 사인 안 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것 왜, 결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아직까지 아주 표면적으로 북한이 받겠다 이렇게 지금 하지 않은 것도 물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세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 말씀처럼 북한에서 받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옥수수 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그것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면 또 실무적인 그런 접촉이, 연락이 서로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께서 북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가 우리 측이 제공 의사를 밝힌 옥수수 1만t에 대해서 맹비난한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북한의 공식 매체라기보다는 일부 온라인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 인터넷 매체가 정식 그게 아니라고 장관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조평통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간 북한 당국은 아닙니다.

**○구상찬 위원** 북한 노동당의 외곽조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평통의 외곽단체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조평통의 외곽단체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북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의 공식 당국의 반응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조금 이따가 계속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그 직후에 북한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다른 부처, 예를 들어서 군이라든지 국방부 쪽에서는 대화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대화는 아니고 어쨌든 서로 얘기가 오간 것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국방부 얘기는.

**○권영세 위원** 물론 이게 군사적인 문제니까, 문제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든 없든 군 쪽에서 대화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군사적인 충돌이든 혹은 문화적인 것이든 통일부가 좀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 통일부의 무용론이 나왔을 때 그 무용론 중 하나의 근거가 인수분해하면 뭐든지 다 다른 부처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통일부가 필요 없다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통일부가 북한과 대화가 됐든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필요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을 우려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노력은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번 서해교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른 분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서도 아마 생각이 다른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것 분석 작업하는 데는 통일부도 관여합니까? 어디서든 분석 작업을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통일부도 관여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내부 의견도 좋지만 전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도 관여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거기도 물론……

**○권영세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내부에서 분석하는 팀들이 있다면 통일부에서는 주로 어디가 관여를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외교 안보 부처가 각각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권영세 위원** 아니, 통일부 내부에서는 어디가 참여를 하냐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은 정책 정세 분석을 하는 그런 국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급해 가지고……

지금 옥수수 문제인데, 얼마 전에 옥수수 대북 지원하겠다고 그랬던 문제인데 예년에는 매년 수십만t 그것도 쌀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1만t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옥수수 5만t인가 그랬지요, 우리가 제안했다가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이번에 1만t,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구상찬 위원이 북한에서 맹비난을 했다 얘기를 하시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대답은 그것이 비공식매체고 또 어쨌든 북한 당국에서는 특별히 비난하는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 1만t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한테 주는 그런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십자사가 소위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권영세 위원** 장관님,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전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대북 지원은 직접 주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적십자사라는 채널을 이용하느냐 이런 것이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정부가 아니니까 적십자사가 준 것이니까 1만t은 별……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형식……

**○권영세 위원** 제가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대북 접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1만t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희들이……

**○권영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관님 얘기하셨

듯이 지금 1만t 줬는데 당국에서 아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난하냐?' 이런 취지의 반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조평통의 본류 매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표현에 따르면 비공식매체에 불과한 데서만 비판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옥수수 1만t이 적다 하지만 옥수수 1만t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1t짜리 트럭이 1만 대가 늘어서는 양입니다.

**○권영세 위원** 1만t이 저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여태까지 줬던 것하고 비교해서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하실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비공식 남북 접촉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초기에는 비밀 접촉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만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다 까라,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시인을 하는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매체에서 보면 정상회담이 논의됐고 장소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소야 물론 정상회담 할 경우 당연히 서울이 바람직하겠지요, 지난번에 계속 두 번 평양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다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슈가 괜찮다면 장소 문제는 좋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꼭 한다는 예단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사안, 예를 들어서 장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 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이 정답을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만일 장소 문제로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가 맞다면 지금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이 중요하지 장소 문제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장관님 생각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회담은 고위급 회담이든 또 물론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권영세 위원** 좋습니다.

예산 관계 하나도 질문 안 했으니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 20년을 계기로 통일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보면 지금 옛날에 연구하셨던 것은 통일 후에 한 3년 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도 변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 이후 얘기만 주로 관심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입니다. 그럼요.

**○권영세 위원** 사실은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통일 이후의 문제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중점이 상당 부분은 통

일 이전에 동·서독 관계가 어떤 식으로 돼 왔는지에 대한 연구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박선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3차 서해교전이 우발입니까, 도발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뭘 더 검토하고 뭘 더 조사해야 되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2분간 있었던 일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경고방송하고 그리고 경고사격을 하는 것도 교전수칙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두 번씩만 하면 되는데 다섯 번씩 했고,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니까 그들은 정조준해서 우리 배에 50발의 탄흔을 남겼습니다. 정조준해서 탄흔을 남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도발해 오지 않았는데 갖다가 퍼부었습니까? 우리 군이 과잉 대응을 한 겁니까?

지금 정부의 답변에 정말 국민들 속이 터집니다. 총리는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장관은 우발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고 통일부장관은 더 조사해 봐야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정부가 뭐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의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은……

**○박선영 위원** 아니, 우발로 보시는지 도발로 보시는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박선영 위원** 아니, 우리가 경고사격을 하는데 그들은 우리 배에다가 정조준을 했는데 이것이 우발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이 과잉대응했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은 정확하게 교전수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전수칙에 따라서 했으면 도발이지요. 아니, 이 3차 서해교전은 우발도 아닌 것이 도발도 아닌 것이 오로지 아리송한 그런 3차 교전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의도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 질문은 우발이냐 도발이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우발적인 것이냐 도발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정부가 정말 지금 뭐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는 교전수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응을 했고 또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박선영 위원** 교전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했으면 도발을 해 왔으니까 수칙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발이라고 하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답변이 모호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말 자체에 개념적 판단을 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개념이 잘못돼 있는 게 정부입니다.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든 우발적으로 도발을 했든 도발은 도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고를 했고 경고사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직접 저희들 배에……

**○박선영 위원** 정조준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직접 조준을 해서 사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대응을 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자, 보세요.

그것은 사건의 발생 과정을, 경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경고사격을 했는데 그들은 정조준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도발이지 어떻게 우발입니까?

그들이 경고사격을 하는데 그 경고사격한 탄환이 우리 배에 90도로 잘못 와서 꽂혔습니까?

경고사격은 어디다 합니까? 경고사격은 그 목표물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똑같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선영 위원**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군이 과잉 대응을 한 것이 되고 잘못하면 북한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도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총리부터 뭐하는 겁니까, 지금 통일부장관도?

통일부장관, 내년에 북한정세지수 개발한다고 18억 5000만 원 순증해서 새로 사업 신규로 만들어 놓으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답변도 못 하면서 무슨 수로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별로 북한체제 내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가지고 그것을 정세지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통일부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서, 북한에 가지도 못 하면서 무슨 정세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정세지수 개발할 능력 없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남북 접촉에서 통일부 완전히 제외되고 있지요?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아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말을 할 게 없다는 겁니까, 아는 것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아는 것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이 한 말을 부정확하게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말이라는 게 그렇게 분명하게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아는 게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정말 큰일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전초 작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시면. 지난번 회의에서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오늘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말할 수 없다,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아시는 게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박선영 위원** 통일부가 왜 존재합니까?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노동부장관이 왜 갑니까? 노동문제 협의하러 노동부장관이 거기 나갑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는 왜 16억 3500만 원인가 16억 3300만 원인가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아시는 게 없고 그러면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묻지마 예산'의 특수활동비는 왜 내년에 14.4%나 증가시켰습니까? 그것 뭐하는 예산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정보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선영 위원** 정무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북한정세지수는 개발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것 개발한다고 18억 5000만 원 넣어 놓고 통일부장관은 서해교전이 일어나도 그저 아리송한 답변만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비밀접촉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도대체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국민 혈세인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정세지수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박선영 위원** 국세청은 지난 9월인가에 특수활동비 사용액을 월별로 다 공개했어요,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지요?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는 그것은 과문합니다만……

**○박선영 위원** 예, 언론에 다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세청장도 특수활동비를 월별로 다 공개를 했는데 통일부장관은, 지금 남북 비밀접촉에 통일부가 관여한다면 충분히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어디다 쓰는지 말 못 하겠다고 해도 위원들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서…… 특수활동비가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다른 부처나 대통령실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순증 퍼센티지로 보면 14.4%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무적인 것이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통일부장관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특수활동비는 왜 이렇게 매년 올립니까? 작년에도 15억 6300만 원이었어요. 이런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침해하고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처럼 공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진영 위원** 우리 현 장관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통일부 업무를 상당히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많은 국민들이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확실한 전기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잘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많은 국민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60주년 기념행사, 제가 50주년 때인 2000년에 미국을 갔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 많은 기념행사를 하더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6·25 기념행사라는 것이 6·25때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행사거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6·15 선언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킨 6·25때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이런 행사는 성대히 해야 되고 보훈처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통일부, 또 문광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예산 작성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민주화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데 이것은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헌법적 문제까지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마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느 나라 국회든 예산안을 볼 때 반드시 이것은 봐야 된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남녀 평등이에요. 예산의 효과가 남녀 평등하게 미쳐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봐야 될 원칙이에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진영 위원** 국가재정법 보면 내년 예산부터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한테 제대로 분배가 되느냐, 가난한 사람이랄까 장애인이랄까 또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이랄까 노인이랄까 이런 소외·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예산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국회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이번 예산안 작성하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녀평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아주 깊은 생각을……

**○진영 위원** 통일부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년 예산부터 성인지 예산 보고서 내게 돼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진영 위원** 통일부가 몇 개 사업 냈는지 아세요?

통일부에서 국회에 2개 사업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내년 예산부터 보고서를 내게 돼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여성부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해서 분석 보고서를 내도록 정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모든 사업이 다 해야 돼요. 국민 세금을 쓰는 경우에는 전부 이게 남녀평등이, 공평하게 돌아가느냐를 분석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통일부 예산을 보면 그런 데 대한 염두를 둔 게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위원** 두 가지를 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냈고요. 두 번째는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세워 놓은 기준이 이 두 가지에 해당돼서 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첫 번째 해당하는 것 북한이탈주민에 도와주는 것은 성인지 분석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성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뭐 분석하나 마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우리가 양성이 평등하게 되려면 북한이탈주민이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머지 사업에 한해서는 이게 반드시 여성과, 여성에게도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분석을 하고 예산을 작성해야 되고 통일부 예산이 앞으로, 금년 것은 벌써 끝났구먼. 내년 것을 작성할 때부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도 더 전진하고 예산의 효율성, 발전이 훨씬 빠르다 하는 게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는 장관께서도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말이지요, 집행 과정에서도 반드시 따져 보세요. 나중에 결산 때 성인지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고요, 결산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예산이 남녀평등하게 돌아갔느냐를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과정에서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에 예산이 얼마나 돌아갔느냐 말이지. 통일부가 이거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을 도와준다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 세금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의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돌아갔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러면 북한에 준 것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이제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대로 취약계층에 갔는지 아니면 집권층에 갔는지 이런 부분을 사후라도 반드시 살펴봐서 다음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탈북자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탈북자 예산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진짜 탈북자들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이 되도록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제출한 것 봐 가지고는 국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 어차피 금년 것은 판단할 수도 없고 자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 장관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다, 남녀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하고 소외계층한테 반드시 혜택이 끝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이게 예산안에서 상당 부분 실현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탈북자 예산이 저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의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적은 예산 세세세세한 것까지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하느냐를 살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이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또 수립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많은 다른 나라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경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존경하는 구상찬 위원님 또 권영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참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또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특히 그 한계는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 또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치적인 이벤트화 됐었던 점 이런 점들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지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결국 이 투명성 부족이나 정치적 이벤트화가 갖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가 역시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 과정 그리고 이후에 결실을 맺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들이 결국 신뢰의 부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 투명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을 정치적 이벤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시적 개최를 목표로 해서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좀 투명성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전 접촉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 이것을 앞으로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정말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더 자세한 팩트와 관련된 얘기는 좀 말하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이군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부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못 하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우리 정부의 특히 담당자들께서 이런 질문과 일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과 노코멘트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장관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하여튼 저는 장소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꼭 합리성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성만을 고집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자세 외교 아니냐 하는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일면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저자세 문제를 고

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연하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산가족 초청행사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 지금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1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것 너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통해서……

**○남경필 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행사가 어떤 건가요?

올해 했던 그 정도 행사가 내년에 1억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10월 달에 만났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남경필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이것은 이산가족, 그것은 국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행사는.

지난 10월에 했던 것은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국내에 필요한……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들을 제가 초청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일단 들어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광업협력 관련돼 가지고 내년에 643억 원이 신청이 됐는데 이게 증액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남경필 위원** 그런데 북한의 잠재 가치 있는 유용광물 매장량이 약 7000조 원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여러 가지 물론 거기에 대한 추산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산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엄청난 유용광물이 매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 함께 광업협력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이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치상으로는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더 남북 간에 활발한 투자협력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충분치 않고 오히려 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것은 그렇게 좀, 하여간 남북협력이 진전이 되면 또 광물협력도 함께 따라서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전데요……

**○정의화 위원** 윤상현 위원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실래요? 아마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어차피 제가 간단하게 2, 3분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김충환 위원장님이 특별히 저를 돌봐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옥수수 이야기 좀 나왔습니다만 느낌상 좀 적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 적십자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들어봐서는 분유 10만t 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20t입니다.

**○정의화 위원** 분유 20t 그리고 다른 지원도……

**○통일부장관 현인택** 의약품……

**○정의화 위원** 의약품도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말이지요.

식량지원을 위한 우리 당국 차원의 논의를 위해서 장관급회담 제안 같은 것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문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그것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양이 아주

많아지면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소위, 굳이 언론에서는 한국형 프라이카우프(Freikauf)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론 남북 간에 어떤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가 그것을 위해서 북한에 장관급회담을 제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대북 접촉면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분위기 조성도 정상회담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농촌진흥청인가의 자료를 보면 올해 거의 한 190만t이던가요 그렇게 부족한 걸로 돼 있고요. 실제 해외에서, 외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10만t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150만t 이상의 부족인데 그렇게 볼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럴 때에 옥수수 1만t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게 물론 적십자 차원이기는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쩨쩨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나서서 접촉면도 넓히고 그런 인도적인 지원도 할 겸해서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너네 얼마 필요하노, 우리 도와줄게' 그러나 투명성 있게 하고 뭐 등등등등에 대한 논의를 해 가는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해교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NLL 문제 가지고 더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직접 얼굴과 얼굴이 만나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더 나쁜 감정도 생길 수 있다 이거지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남북문제는 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무진이건 적절한 레벨에 있어서의 그런 접촉들을 해 나가서 서로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하고 재발도 방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정상회담 부분이 지금 NHK에서 보도가 되고 이랬다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현 장관께서는 아주 탁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 출신, 전문가 출신입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은 출발서부터 투명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현재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일반론적으로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쨌든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의 차원이 있습니다만 좀더 투명하게 하고 또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을 저희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보다 투명성 있게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과거 김대중 정권에 있어서의 남북 대화나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저는 다 좋은데 국민들의 합의 없이 베일 뒤에서 그것도 어떤 돈이 현찰이 가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였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틀을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낸, 시발점을 만들어 낸 데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권에서는 좀더 투명성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NGO도 여러 군데 관계를 하고 있는데 북한 병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그에 관련한 지원 물품들이 아직 인천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못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정의화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거의 다 순차적으로 풀어져서 아마 90% 이상이 다……

**○정의화 위원** 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예산을 보니까, 무연고 청소년 보호시설 지원은 불과 7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이런데 장관께서 한번 직접 가 보십시오, 이거면 될는지. 기왕 도와주는 거면 무연고 탈북청소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대안학교도 예를 들면 제가 여명학교에 직접 가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하늘꿈학교는 4500만 원으로, 이게 2009년이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명학교를 예를 들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슷하게 잡혀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여명학교를 예를 들면 1년에 한 10억 든다고 그러거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4500만 원,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탈북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학 지원 문제, 중도 탈락자가 많은데요. 사실 탈북자로서 대학에 갈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을 잘 팔로우업하고 잘 백업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의 역군이 될 수 있는, 통일요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2년제 전문대학이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런지 한번 장관께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북경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석전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을 테니까 한번 고려해서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해 주신 윤상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통일부는 이번 대청해전에서의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이 의도를 좀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1·2차 연평해전이 몇 월에 일어났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6월에 있었고 9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6월 아닙니까? 둘 다 6월에 일어났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6월요.

**○윤상현 위원** 그런데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지난 10월에 일곱 번 있었습니다. 또 9월에는 다섯 번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 10월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일곱 번 침범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알고 미리 사전 도발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지난 1·2차 연평해전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전단을 이루어서 NLL을 침범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내려왔고요, 또 해안포 대기를 안 해 놨습니다, 해안포 대기를.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제한된 의도를 가진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제한된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남북 대화가 또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특히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서 한반도에서 미국에게 시그널, 예를 들면 한반도 긴장조성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해군의 젊은 장병들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훈련하고 철저히 물적 수단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통일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양은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 2300만 명 중에 핵심계층으로 분류된 13%,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평양 인구수에 변동이 없는 것은 거주제한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런 평양의 모습이 북한 사회의 숨겨진 진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 사회의 일 단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을 모르는 혹은 북한을 잘못 알도록 설득되어진 세대에게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우리 사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윤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6·25 60주년 기념행사에요, 통일부가 계획하는 행사 중에 분단현장 및 남북 관계 사진전이 있습니다. DMZ, 판문점, 남북회담 역사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고 하는데 정작 전쟁 6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현실이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전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북한이 선전한 분칠한 평양이 아닌 북한의 감춰진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전시 내용이 필요하다고, 담겨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또 하나는요, 탈북자와 방북자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A·B·C급으로 나눠서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등 영리 목적의 면담도 아니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면담 사례비를 제공한다는 게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렇다 치더라도 북에서 살다온 탈북자하고 북한을 잠시 방문한 방북자에게 똑같은 등급으로 똑같은 사례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 그룹으로 일단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면담자에 따라서 등급을 약간 차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보다 구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잘 적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B·C 등급을 나눌 때 주로 해당 인사의 지위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작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국 인원만 2809명입니다. 그런데 면담 대상 인원은 탈북자가 420명이고요, 또 방북자가 1635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보완해 주시고요.

면담하는 사람들이 정부요원이 아니라 석·박사급 16명에게 외주 용역을 준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 인력으로도 6명을 별도로 두는데 취합된 정보들의 보안이 지켜질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조금 기계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북한정보를 다루는 매체나 또 단체들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구하고 국정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일이라고 봅니다.

통일부 예산에 이미 통일정책 추진활동이라고 해서 국정원과 연계된 정보 업무에 쓰이는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윤상현 위원** 그런 예산도 활용해서 조용하고 치밀하게 할 일이지 이렇게 좌판 벌이듯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구상을 다시 꾸며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정세지수, 이 말씀은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효용성 이전에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상황을 수치화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점에 관해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지수들이 있고 모형들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적인 모형을 갖고서 아주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간 북한정세지수는 보다 과학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북한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과학화하고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은 직장 배치라든지 대학 진학, 평양 거주, 식량 배급, 배우자 선택 등 모든 사회생활에서 계급차별이 고착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각 분야에서 비인도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계십니

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북한정세지수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층면접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저희가 죽 해 왔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보다 더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정치범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하루에 급식이 100g~300g입니다. 보통 북한에서 0세~4세까지 유아에게 지급되는 식량이 234g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족까지 동원해서 수용소에 가둬 놓고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부 세계에서 준 쌀 한 톨이라도 이곳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지금 북한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 수용소의 실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언급한 전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아마 파악을……

**○윤상현 위원**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것을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런 점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범 수용소 같은 인권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뼈저린 문제다, 실제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고 그 실태를 공개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게 더 시급하지 효용성도 불확실한 북한지수라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적하신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뜻은 알겠고요.

다만 북한정세지수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또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간사, 윤상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상현**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서울 강동갑의 한나라당 김충환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정책 또는 통일을 끌고 가는 기관차다 하는 인식은 확실히 가지고 계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특별히 탈북동포들, 대한민국에 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보호 또 옹호자의 역할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고도 없고 인적 네트워크도 없는 또 지식이 부족한 탈북동포들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적십자사가 1만t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의 일종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작년도의 5만t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단 작년에는 북한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요.

**○김충환 위원** 한 번 거부하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하여간 그것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하여튼 그것도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쌀 40만t 지원 예산과 비료 30만t 지원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 또 통일부가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의지와 또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대화 또 협력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만은 끊어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위원** 최근에 남북 접촉을 했는데 다른

장관이 남북 접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충환 위원**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현 장관께서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내세워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국민이 볼 때, 제가 신문 언론보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발언으로 볼 때……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인사 또는 앞으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인사,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또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남북대화의 기본적인 공식 창구는 저희 통일부라는 점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또 보도에 보면, 최근에 개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촉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한 것은, 이것이 공개된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께서 보실 때 통일부의 입장에서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남북 관계에 적극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결국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결국 정상 간의 접촉이라든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이런 것은 보다 큰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아래 단계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접촉이라든지 또는 장관급 접촉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또 용이하지 않느냐 또 비공개적으로 접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 장관급 접촉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단계적으로 사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물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통일부가, 또 장관님께서 그러한 다각적인 접촉과 통로가 유지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일부 통계를 보면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또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1세대들이 많이 연로해지시고 또 세상 떠난 분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은 경험이 없고 또 세계가 점점 이 통일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가 통일 문제 또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에너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 과거에는 예산이 3억까지 지원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는 조금 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통일을 지향하는 에너지가 계속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그 연구 작업을, 아까 북한에 대한 지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접촉할 일이 있어서 미국의 랜드연구소 같은 데 보니까, 연구소를 이렇게 쭉 나눠서 다양하게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이런 연구기구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인원을, 연구자들을 새로 충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식의 집중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통일연구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연구원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서해교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쭉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대체로 올바르게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통령 지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관계는 지난 10개월, 11개월의 그 흐름을 쭉 보시면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또 핵실험까지 한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유엔 제재가 계속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요. 지난 또 8월부터 이제, 지난 12월 1일 이후에 북한이 취했던 조치들을 북한이 쭉 거둬들이는 그런 과정이 좀 있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추세를 보시면 지난 8월 이후에 변화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남북 간에 임진강에 관련된 그런, 말하자면 대화도 있었고 이산가족 만남도 있었고 그런 몇 가지 변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런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보다는 남북 관계가 조금 완화되고 조금 나아진 그런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어쨌든 이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현 장관 또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시키고 있다 하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상현**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으므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통일부 직원들은 많이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님 석이 많이 비어서 참 추가질의를 드리기도 송구스럽네요.

그 악명 높았던 731부대에서 마루타로 희생되었던 분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한국 분, 여덟 분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항일독립투사였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 여덟 분 가운데 일곱 분, 그 일곱 분 가운데 여섯 분이 모두 함경북도하고 지금은 이북이 된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법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비인도적·반인륜적인 범죄로 보아서 국제 소송도 준비를 좀 할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유가족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일을 통일부가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적극적으로, 그냥 지금 순간만 넘기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리고 다음해, 내년의 납북피해자 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좀 줄었네요. 왜 그런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인원수가 저희들이 좀 줄었습니다.

**○박선영 위원** 503명이지요, 현재 납북자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이 납북자는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송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북한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적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이제 좀 정체되는 경향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9월에 국가권익위원회가 납북자에 대해서 국가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 낸 거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그 납북자 분들이 끈질기게 요구하셨던 부분입니다, '합동위령제를 좀 지내게 해달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이분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배제하는 것은 참으로 국가가, 국가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위령제 설하고 추석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루만지고 안아줄 수 있는 건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면서까지 이분들의 가슴에 한이 더 크게 맺히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취지에서 추모공원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납북자 가운데는 이미 돌아가셨을, 평균 수명이 훨씬 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합동위령제와 추모공원을, 그 납북되신 분들의 가족이 대부분 강원도 북부 지역에 살고 계신 건 잘 아실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쪽에 통일동산도 있고 하니까 좋은 장소에 좀 반듯하게 추모공원도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의 예산만으로 할 수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지금 변경할 수도 있는 기간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납북자의 가족 가운데 87%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건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정부의 손길이,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좀 차별화돼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각별하게 제가 장관님께, 그리고 통일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많이 늘리시겠다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기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좀 충격도 줄일 수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가장 퍼스트 에이드(first aid)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올해 시작해서 처음에 여섯 곳 시범운영하다가 열다섯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30 곳으로 수를 늘렸는데 이 시범기관의 의견수렴은 거치셨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짜여진 것을 보면. 그리고 1개소당 예산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지금 42억 원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윤상현 위원,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박선영 위원** 42억 원을 30 곳으로 그냥 산술적으로만 나눠도 한 1억 3, 4000만 원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1억 4000만 원.

**○박선영 위원** 거기에 지자체에서 30%를 대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조금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30%,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요, 4대강 예산으로 다 예산 뺏기고 그다음에 세수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 교부금도 제대로 안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달갑게 하는 사업도 아닌, 어떻게 보면 손만 많이 가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런 북

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하면서 지자체보고 30%를 대라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어떨까 몰라도 지방은 대단히 어렵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전국 곳곳에 가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넓히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과정을 봐 가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내년도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패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이 플랜(plan)을 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지만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13조에 보면 위원은 명예직이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그 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부의장 등에 대해서 회의 출석 수당하고 여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활동경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재경부에서,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그것도 없어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침에도 어긋나고, 첫째는 지침이 설혹 있다 하더라도 지난해 이맘 때 제가 똑같이 지적을 해드린 바대로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지침이 있는 거지 어떻게 민주평통은 지침 밑에 영이 있고 영 밑에 법률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예산을 짤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감하시고, 민주평통이 그렇지 않아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은데 예산까지 이렇게 짜시면 정말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정당성을 보유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스스로 삭감을 이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답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정부는 특히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 이런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부보다도 좀더 잘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 문제는 사실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조금 지역, 예산 문제로 그 30 군데에서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지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안 하면 돌봐줄 수 있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대식 처장님은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존경하는 우리 박선영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올해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영 위원** 아니, 이것은 입법이 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예산지침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근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고정 급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활동비 형태로 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박선영 위원** 상근에 준해서 월 15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면 이것은 최저임금제에도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아니, 그게 수석부의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석부의장에 대한……

**○박선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법성을 갖도록 다시 한번 리뷰(review)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대식** 예.

---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옥임 위원, 홍정욱 위원, 정의화 위원, 이미경 위원, 이춘식 위원, 권영세 위원, 그리고 저도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외교통상부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18인)**

| | | | |
|---|---|---|---|
| 구상찬 | 권영세 | 김충환 | 남경필 |
| 박상천 | 박선영 | 박 진 | 윤상현 |
| 이미경 | 이상득 | 이춘식 | 이회창 |
| 정몽준 | 정옥임 | 정의화 | 진 영 |
| 홍정욱 | 황진하 | | |

**○출장 위원(1인)**

정진석

**○청가 위원(4인)**

| | | | |
|---|---|---|---|
| 박주선 | 송영선 | 신낙균 | 정동영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구희권 |
| 전문위원 | 허영호 |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 | |
|---|---|
| 장관 | 현인택 |
| 차관 | 홍양호 |
| 대변인 | 천해성 |
| 기획조정실장 | 김호년 |
| 통일정책실장 | 김천식 |
| 정세분석국장 | 양창석 |
| 교류협력국장 | 김남식 |
| 통일교육원장 | 홍재형 |
| 남북회담본부장 | 엄종식 |
|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 최보선 |
| 납북피해자지원단장 | 서성우 |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 | 유종렬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 윤미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
|---|---|
| 사무처장 | 김대식 |
| 기획조정관 | 김점준 |
| 통일정책자문국장 | 장득순 |
| 정책연구위원 | 김영구 |

**【보고사항】**

**○위원 보임**

| 보임위원 | 교섭단체 | 연월일 |
|---|---|---|
| 이광재 | 민주당 | 2009. 11. 12 |

**○의안 회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5건 2009. 11. 4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5일 회부됨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범관 의원 대표발의)**

(2009. 11. 9 이범관·김우남·유성엽·송영선·김성회·나경원·조전혁·홍사덕·이한구·김옥이·이춘식·김충환·진영·주광덕·홍일표·이한성·구상찬·이성헌·오제세·이해봉·김성태·손범규 의원 발의)

11월 10일 회부됨